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2008 청정유성의 비전



| 진동규 | 유성구청장 |

1. 머리말

‘이제는 유성입니다.’, ‘유성에 오면 왠지 기분이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대전의 관문이자 얼굴인 유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엇보다도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점은 도시가 깨끗하고 꽃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다른 지역보다 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꽂초가 적고 수시로 다니는 도로 청소차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청정유성’을 실감한다고 한다. 최근에 유성구를 방문하는 타지역 분들이 유성을 칭찬하고 벤치마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기분 좋은 일이다.

필자는 20여년전 갑천에서 먹을 감으며 즐거워 하던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부터 청정한 산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에나, 2004년에 유성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구정을 펼칠 때도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청정유성’의 실천에 관한 문제였다.

(1) 유성의 핵심역량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발전을 하려면 그 조직

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 (core-confidence)을 잘 발굴하여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청정유성'은 유성구의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관광특구, 과학특구, 교육도시라는 특수성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여건에 비추어 볼 때 '청정유성'은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이자 행동의 준거틀이며, 지역 활성화의 원천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6월 유성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필자는 '청정유성'을 유성의 핵심역량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왔다.

(2) 주민졸도행정의 실천

오늘날 지방행정의 또 하나의 덕목은 주민감동을 넘어 '주민졸도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항상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행정에 임하여야 한다. 유성구는 작년에 황금돼지해를 맞아 구청광장에 역시에 남을 '황금돼지사육'으로 구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으며, 올해 무자년의 '쥐사육'도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제 지난 3년여의 구정성과를 돌아보고, 2008년 유성의 비전을 11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지난 3년의 성과

행정은 합리성, 논리성, 공익성의 3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지론이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인 것이다. 지난 3년여 동안 구정을 행하면서도 필자는 항상 이러한 행정의 3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3년의 성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유성의 정체성(正體性)' 확립

구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유성의 정체성(正·性, identity)'을 확립했다. '청정유성'을 브랜드화 했으며,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의 슬로건 하에 차별화된 유성만의 정책을 실시해 왔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결한 유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청정유성'시책을 실시했다. 유성하면 꽃다리가 생각날 정도로 유성 전역을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으며, 구청 담장을 비롯해 학교, 공공시설의 담장을 허문 것도 유성만의 차별화된 정책이었다. 또한 유성의 10대 자랑을 발굴해 냈고, 선비의 고장 유성을 계승할 평생교육특화도시의 추진도 유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책이었다.

(2) '함께하는 행정' 패러다임

'함께하는 행정'을 이루기 위해 진력해 왔다. '발로 뛰는 행정'을 모토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매주 목요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 왔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현장 행정의 날로 정하여 유성의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다. 가능한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종 주민참여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청담장을 허물어 구민의 마음의 벽 까지도 허물었을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바 대로 구청 앞마당에 ‘황금돼지사육장’을 만들어 아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3) ‘대한민국 성장엔진’ 토대 마련

‘대한민국 성장엔진 청정유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관광유성의 진흥을 위해 ‘명물테마거리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폐업상태이던 리베라호텔의 재개장을 이끌어 냈다. 과학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과학의 사업화를 위해 R&D+B(business)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대덕테크노밸리, 노은, 봉산, 덕명, 서남부권 등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으며, 여기에 부수하여 복지시설 및 도서관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및 공원을 정비함으로써 ‘전국 제1의 웰빙도시 유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유성구는 ‘2006년 가장 살기좋은도시’로 선정 되었으며, 대한

민국 가치창조대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는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대상 수상을 비롯해 재정분석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받았다.

3. 2008년 유성의 비전 - 11대 프로젝트 추진

지난 3년여 기간이 청정유성의 싹을 틔운 시기였다면 2008년은 대한민국성장엔진청정유성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려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올해 유성구에서는 11대 역점 프로젝트를 선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쟁력있는 과학·관광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삶의 질 최고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1)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

지난해 본격 착공한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만년교에서 유성천과 갑천을 따라 봉산동 신교에 이르는 18.8 km의 구간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레저스포츠형 자전거도로가 건설된다. 또한, 지난해 약 7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에 이르는 시범구간을 비롯하여 현충원역과 반석역 일원에 대한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파리식 벨리브제 같은 자전거 공영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하여 자전거 타기 편한 전국 제1의 자전거 도시 유성을 건설할 계획이다.

(2)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어은교에서 구암교에 이르는 2.55km에 달하는 수해상습지 유성천을 치수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청계천 이상의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11년까지 약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물놀이장, 캐스케이드, 벽천, 산책로 등 각종 체험공간과 볼거리가 완비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성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한편, 신동천, 덕진천, 관평천, 탄동천 일원의 13.95km에 달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에 방은 물론 생명력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 유성명물테마거리 1단계사업으로 조성한 온천족욕체험장을 포함하여 흥인호텔에서 계룡스파텔에 이르는 1km 구간에 물터널, 야간경관조명, 젊음의 광장, 야외공연장 등 추억과 낭만이 있는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지대로

변모시켜 우리지역의 확실한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4) 공동, 캠퍼스타운 조성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등 젊은 대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인 공동 로데오거리를 대학로 상징거리와 연계하여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대학동아리 등이 주축이 되는 거리공연을 비롯하여 사시사철 젊음과 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한편 로데오거리 등을 중심으로 차없는 거리도 추진하여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5) 카이스트 국제화존 조성

KAIST에서 유성구청에 이르는 1km 구간을 '국제화Zone'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외국인인 잘기는 업소를 파악하여 약국, 주점, 음식점,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식당 메뉴판에 영어를 병기하는 등 규격화된 안내간판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실도 대폭 개선하여 외국인들이 내집·내고향처럼 편안하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제2의 이태원거리'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6)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전통 5일장이 서는 유성 재래시장을 집 단화, 현대화하여 상업, 주거, 문화가 조화 되는 복합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단지로 살 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공청회, 지방 의회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의 여론을 수 렴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여 시골장터로서의 특성화 된 브랜드를 살린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가 꺾나갈 것이다.

(7) 유성 대표축제 개발

5월에 개최되는 이팝꽃축제와 10월에 개최되던 YES 페스티벌을 통합하여 5월에 개최하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제로 브 랜드화하여 지역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유성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제 업무를 관장할 민간주도 법인체인 사단법인 '유성문화예술 축제연구소'를 새로 발족하 여 이를 중심으로 특화된 소재를 발굴, 경 쟁력있고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축제로 승화시킬 방침이다.

(8) 동청사 신축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성장에 따른 주민 들의 기대심리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은2동, 온천2동, 대덕테크 노벨리 동청사를 조기 신축할 계획이다. 약 44억여 원이 소요되는 노은2동 주민센터는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온천2동 주민센터도 금 년 하반기에 착공, 약 70억 원을 들여 2009 년까지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곧 분동이 예상되는 대덕테크노벨리 주민센터 도 관평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 로 37억여 원의 재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는 완공될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9) 24시간 평생학습관건립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 를 갖추게 될 평생학습관을 두루봉공원 내 에 노은도서관과 겸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194㎡ 규모로 3월경에 착공 할 계획이며, 시 보조금 36억원의 지원을 받아 전민동에 평생학습관 분원 건립도 추 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동별로는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선비의 고장에 걸맞 는 평생교육의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방침 이다.

(10) 반석천 역새플 식재사업

반석천의 오염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해 노은2지구 반석천 일원 0.8km 구 간에 역새플단지를 조성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이 다.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시범 식재하 여 최적의 식재방안을 얻음으로써 가급적 호안침식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시공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역새플 식재사업은 2009년

말 까지 반석천 전역으로 확대해 구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된다.

(11)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26만 유성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구민화합체육대회를 10월에 민·관·군 학생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10월의 유성축제와 겹쳐서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올해 부터는 독립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성구민의 한마당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있는 변화의 바람에 공무원들이 빨리 적응하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2008년 유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창조적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필자는 580여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26만 구민들과 힘을 합쳐 2008년 유성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VERY GOOD!! 청정 유성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한다.

4. 맺는말

유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유성의 10 가지 자량이 말하듯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략이 부재하고 실천의 마인드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유성을 '경쟁력 있는 과학,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로 나아 가려는 열린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유성구는 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이 200여명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많게 느껴진다. 그러나, 필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불고